

# 나옹스님 禪사상은 '돈오무심'

인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스님(?~1363)이 인도의 나란타사를 본떠 대규모로 창건했다는 회암사, 고려시대 나옹(1320~1376)스님과 조선초 고승 무학스님(1327~1405)이 주석하면서 선종을 크게 떨친 곳이다. 스님들의 부도가 현존해 있는, 당시 전국사찰의 총본산이었던 회암사는 지공·나옹·무학스님을 추모하고 스님들의 선사상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지공·나옹 화상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지난 4일 회암사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 회암사 지공·나옹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신규택교수(연세대)는 '나옹화상의 선사상'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에서 나옹사상은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는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과 깨우치고 난 후 수행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돈오무심사상이며, 입제의 선종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의 본래면목을 돈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여(眞如)란 고정된 것 또는 실체를 인식하는 것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멀지 않는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을 철두철미하게 깨치기 위해 선종의 실천방법론인 돈오무심(頓悟無心)을 강조했다. 물론 그 무심의 상태가 無記空인지 아닌지는 화두가 분명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돈오무심'은 말하지 않는 불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불성본' 사상

과 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옹사상의 근본이라고 신규택교수는 주장했다. 신규택교수는 또 읽은 화두 참구를 강조한 나옹선의 특징으로 첫째 남의 말을 흉내내기를 극히 싫어했던 까닭에 깨달음에 들어맞는 적절한

## 생활수행 통한 깨달음 계승으로 노래 '단경' 가르침 이어 고려불교에 새바람

언어표현을 요구했다는 것과 둘째, 수행자마다 모두가 범람이라고 말하는 등 철저한 자기확신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구체적인 현실에 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표교수(홍익대)는 '나옹화상 계승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발표에서 나옹스님의 시는 신양보다는



두언마 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활용한 무시선법(無時禪法)에서 정각정행(正覺正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자연의 사물을 빌어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지공화상의 국제적 관심과 연구방향' 발표에서 지공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범승들에 의해 한국불교가 유지돼 왔으며 기존의 통설인 태고법흥설을 거듭 부정했다. 허교수는 흔히 고려말에 불교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이때부터 지공사상은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바로 지금까지의 불교사상은 지공사상의 계승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지공사상에 관한 연구가 계속돼 왔음에도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수렴하지 못해 원만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허교수는 지공선사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모아 전집을 엮는 등 국제적 협력관계 속에서 지공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옹(원쪽)·지공화상은 고려후기의 사회적 모순과 불교계 내부의 갈등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여 불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 시대조류 속에서 불교를 발전시킨 선승들로 꼽힌다.

이병욱교수(중앙승가대)는 '지공禪사상의 특색'에서 지공의 세계관은 모든 중생이 생멸이 없는 體를 가지고 있으며, 그 體를 드러내는 방법인 진공무상 즉, 진공(眞空)의 철저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진공무상 방법은 지공의 실천관인 계·정·혜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부연하고 '단경'의 기본입장인 無相·無念·無住와 그 기본입각처가 서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영우 기자

# 義寂스님 '법화경집합기' 일 동경대서 소장

### 김상현교수 복사본 상하 2권 입수

7세기 후반 법상종의 화승으로 유명한 신라스님 의적(義寂)의 저술 '법화경집합기(法華經集驗記)'가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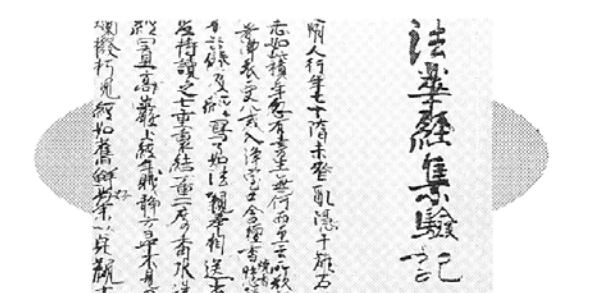
김상현 교수(한국고원대)는 최근 일본의 시게마루(茂松性典)스님으로부터 동경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문적찬(寂撰)'의 '법화경집합기' 상하 2권이 신라스님 의적의 저술임을 소개한 '일본역사' 390호의 보고서와 이의 영인본(귀고전전자간행회 刊) 복사본을 전해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화경집합기'는 '고승전' '동해삼보감동록(東海三寶感動錄)' '집신주삼보기(集神州三寶記)'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요집(要集)' 등 6종의 영험기류를 인용하고 있

신라 법화경집합기 영인본

으며, 전체 39장목의 영험담은 대부분 중국의 사체고, 우리나라의 영험담으로는 '관세음응험기'로부터 인용한 백제 발정(發正)의 것이 인용돼 있다.

김상현 교수는 이번 신라의 '법화경집합기' 2권의 확인은 잃어버린 신라 고전적 가치를 다시 찾음으로써 의적의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7세기 후반 신라에서의 '법화경' 신앙과 영험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고 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또 일본에서 영인본이 간행된지 15년동안 우리 국내 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관련 연구성과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신라스님 의적(義寂)의 저술 '법화경집합기'.

## "禪심리학으로 통일방안 찾자"

### 평불협 창립5돌 법회서 이광준박사 강연

김정일의 인격을 심리학적 분석,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 접근한 이석적인 강연이 열려 관심을 도왔다.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선(禪) 심리학을 전공한 이광준박사(동국대 강사)는 지난 4월26일 평불협 창립 5돌 기념법회에서 '북한문제의 통일심리학적 접근'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김

정일의 인격을 심리학적 분석,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 접근한 이석적인 강연이 열려 관심을 도왔다.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선(禪) 심리학을 전공한 이광준박사(동국대 강사)는 지난 4월26일 평불협 창립 5돌 기념법회에서 '북한문제의 통일심리학적 접근'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김

정일의 출생과 성장 과정, 인격 발달과정, 신체적 형태, 가족상황, 정치적 성장과정 등을 심리학적 분석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안정된 듯하면서도 불협화음이 따르고, 불안정한 듯 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을 꾀하는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김정일의 심리적 상황은 주변 4강국들의 견제와 상임정치위원들의 통제로 인한 심리적 무력감으로 구상기적 의존욕구가

도필선 기자

## 美英 불교학 기초자료집 간행 '활발'

### 東亞불교연구참고문헌 서평 6백권·색인 등 다양한 자료 수록

### 빠알리어학회지 22호 저명학자 논문·강연 실어 올려름 출간

불교학 연구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 논문집·문헌집 등이 미·영국 등지에서 활발히 간행되고 있어 동양 종교인 불교를 올바르게 연구하고자 노력하는 서구 종교학자들의 노력의 성과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성과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3월에 인터넷에서 전자출판한 <동아시아 불교연구 참고문헌>(East Asian Buddhist Studies A Reference Guide)과 오는 7월경에 출간될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지 22호> 등이다.

분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역경된 경전을 국가별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리고 불교용어 및 문법 등을 연구하는 '불교용어학(terminology)'을 통해 경전의 언어연구 참고문헌 색인도 들어 있다. 이외에도 저자별 색인 및 각국의 불교관련 도록·불교사·축제·전래동화·속담·명언록·학과 구분·수행법·인터넷주소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자료가 수록됐다. <동아시아 불교연구 참고문헌>은 '불교실천윤리' 웹사이트(<http://www.psu.edu/jbe/jbe.html>)에서 제공된다.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영국)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22호>는 올해 여름에 출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피터 스티븐 박사, 쉐리 앨리 박사와 소고의 실리다. 피터 스티븐 박사는 이미 <티베트의 대승경전>을 출간해 반향을 일으킨 세계적인 빠알리어경전 연구자.

또한 빠알리어 사전편찬으로 주목받는 마가렛 콘 박사의 '빠알리어-영어 사전'이란 주제의 강연이 요약되어 수록됐다. 그리고 윌헬름 가이게(독일)가 쓴 <빠알리어 문학과 언어>에 대한 노만교수의 서평도 각각 실린다.

한편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는 앞으로 노만교수의 <법구경 논문집>, 김블리히교수의 <계승(繼承)모음집> 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리처드 김블리히 교수(옥스포드대 영문학)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 '빠알리어경전 연구학회'는 1981년 노만교수의 주창에 따라 설립됐으며 빠알리어경전 연구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회이다. '빠알리어 학회 22호'를 구하기 위해선 73 Lime Walk, Headington, Oxford OX3 7AD의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

## 승광사 약사전등 문화재 21건 일제 보수

### 순천시 6월부터 연말까지

순천시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승광사 약사전(사적 302호) 등 관련 21건의 주요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보수·복원키로 했다. 시는 승광사 약사전 외에도 영산전(사적 303호), 대지전, 성보각을 각각 보수하고, 동화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1호)과 향림사 대웅전, 선암사 불조전, 충열사, 옥룡사 등도 각각 보수할 예정이다.

### 도선국사 열반지 옥룡사 복원

도선국사가 입적하기까지 35년 동안 머물렀던 옥룡사지에 대한 도선국사(827~898)가 머물며 불도를 닦았던 옥룡사지를 복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11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발굴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4월1일부터 2년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관계전문가들을 초청, 현

지다사를 벌였다. 옥룡사는 1878년 불에 타 폐허로 변한 뒤 여러 차례의 민가들이 들어와 개간하고 살았으며, 1969년 옥룡사(당시 동백사)라는 새로 지은 대웅전 등 3종의 건물만이 현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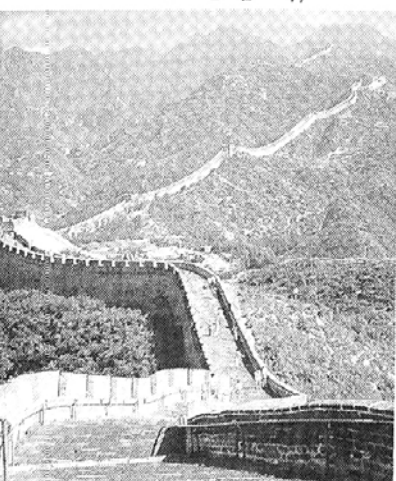
## '21세기와 불교' 심포지엄 16일 조계사 문화회관

한국불교사회연구소(소장 송희식)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불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력의 이동과 종교의 사회참여'(송희식)와 '경영혁신과 종교 조직의 혁신'(노부호교수·서강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열린다.

○기시범처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육신지장보살 김교각)



(만리장성 전경)

# 구화산·보타 낙가산 성지 순례

양일스님(국제불교자비회 회주, 캐나다 대각사 회주)와 함께 지장 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의 육신보전(중국 구화산)에서 구화산 방장 인덕 스님과 함께 지장보살 점안식,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지장 보살님을 조성하여 모셨으므로 복장물을 준비 하셔도 좋습니다. 구화산 불학원에서 장학금 수여식, 보타 낙가산에서 방장 선묘 스님 초청 오찬 등, 지장 기도와 관음기도를 겸한 중국 성지 순례에 뜻을 같이하실 스님과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중국 여행 일정표》

◆ 일정명 : 서울/북경/남경/구화산/항주/천태산/닝포/보타산/상해/서울  
10박 11일 (인원수 38명) TOTAL : 한화 1,250,000원정

일 자	출발/도착	교통편	투숙호텔	주요방문지 및 내용
제1일	6월 5일	서울-북경 CA124, 13:50-14:40	우의호텔	중국불교협회, 시내관광
제2일	6월 6일	북경 BUS	"	자급성, 천단, 이화원, 서커스
제3일	6월 7일	북경 BUS	"	만리장성, 옹허궁
제4일	6월 8일	북경-남경 남경-구화산 CA1507, 07:30-09:15 BUS	거룡호텔	지장보살 점안식, 백세궁 참배
제5일	6월 9일	구화산 BUS	북해호텔	구화산 불학원에서 장학금수여식 케분카로 등정
제6일	6월 10일	황산-항주 BUS	신교호텔	호텔휴식
제7일	6월 11일	항주-천태산 BUS	천태호텔	아유왕사, 회청사, 고명사
제8일	6월 12일	천태산-닝포 BUS	닝포-보타산 배	호텔휴식
제9일	6월 13일	보타산 BJS	"	보제선사 참배 및 오찬, 오후 관광
제10일	6월 14일	보타산-상해 선박, 6:15-오전5:30 BUS	신야광장호텔	상해 도착
제11일	6월 15일	상해-서울 MU5041, 09:00-11:55	"	육불사, 예원, 홍구공원, 임정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마감일 : 항공예약 관례로 선착순 마감. 계약금 ₩300,000원정(취소시 반환 불가)
- ◆ 접수처 : 법보신문,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87-1 진우빌딩1층 (02)725-7010 FAX 725-7017
- ◆ 기획 : 국제반야자비회
- ◆ 협찬 : 법보신문사

\*동참금: ₩1,250,000원정 일체 모든 경비 포함되었으나 현지 한국인 관광 안내 인 2명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天然奇景黃山)